



눈썰매장으로 변한 제주대학교 교정 성탄절인 25일 제주시 제주대학교 교정에서 가족단위로 나온 시민들이 눈놀이를 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영유아 줄면서 어린이집도 매년 감소

최근 5년 새 8000여명·어린이집 60여 개소 줄어
대다수 어린이집 기본반 현원 부족에 운영 차질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조정·공공성 강화 시급”

영유아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매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변하는 보육환경을 반영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가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아 이사량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 연구’(이하 보육계획)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육계획 수립 연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다.

연구 결과 최근 5년 새 영유아 인구와 원아 수가 줄면서 도내 어린이집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

다. 또 보육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데다, 아동 학대 논란 등 보육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보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도내 보육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3만6939명이던 제주 영유아 인구는 올해(3월 기준) 2만8815명으로 5년 새 8124명이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역시 2017년 2만5243명에서 올해 1만9533명으로, 5년 간 5710명이 줄었다.

도내 어린이집 수 역시 2017년 530개소에서 올해 464개소로 줄며 5년 간 총 66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를 대상

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반영됐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36명, 부모 546명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측면에선 기본반 운영을 위한 현원 부족, 즉 원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부모 응답자의 85.0%가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공성 담보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체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공립시설 수를 늘리는 양적 시설 확충 정책에서 질적 수

준 향상의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1순위 현안 대책으로는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이 꼽혔다.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대체·보조교사 지원 정책도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에 연구진은 새 보육계획의 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양육공동체 실현 등으로 설정하고 2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신규 설립된 과제를 보면 ▷단계적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전달체계 기능 강화 ▷친환경 급·간식 지원 ▷연장반 거점어린이집 지정·운영 ▷가정어린이집 전환 운영을 통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재해·재난예방 개선 사업 ‘탄력’ 제주도 특별교부세 36억 확보 8개 사업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현안 해결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사업신청을 통해 총 8개 사업·3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그간 재정투입이 부족지 않았던 지역현안·재난안전 사업 추진에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마지막 정기교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악취민원 해소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하수관로 개선 사업, 도시시설물 정비사업 및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마을 내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방과제 이에 서귀포 오조리 중계펌프장

하수관로 개선사업(3억원), 도남동 주민불편 도시시설물 정비사업(6억원), 중앙중-오남로 간(중로1-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7억원)은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에 6억원, 수산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5억원, 고산동산 자동제설장치 설치 3억원, 제주중학교 서측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3억원,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과제 재해복구사업 3억원이 투입된다.

올 한해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금액은 총 213억원으로 2020년 142억원, 2021년 199억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태훈기자

4·3보상금·2공항 정부예산안 반영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제주, 436억 추가 확보

올해 불용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일부가 내년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됐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 예산안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3년 국비 예산으로 43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증액 13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의 국비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5억 원,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각각 12억 원, 15억 원이 반영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해녀를 전통여성문화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비 9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제주 지역 공약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국가중요어업유산 9억9000만원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비(62억원) 등도 반영됐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358
잠정집계 25일 누계 36만2332
<17시 기준>

72년 장인정신의
한라산소주
SINCE 1950

SINCE 1950

2023

**2022년 한 해 보내주신 사랑,
2023년 투명한 진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내일에도 제주와 함께 건강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청정 제주의 가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한라산입니다.”
주식회사 한라산 임직원 일동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